



해외양돈뉴스



※일본

120년만에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획득

일본이 돼지열병(돼지콜레라, 돈열)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4월 1일자로 일본을 돼지열병 청정국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마지막으로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난 1888년 이후 약 120년만에 청정국으로 복귀한 셈이다. 한편 일본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2000년부터 백신 접종을 원칙적인 중지 및 접종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방역체계를 수립, 실시해왔다.

※미국

돼지고기 수출 지속 호조

올해 1월과 2월 부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5억2천800만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육류수출입협회가 발표한 최근 미국 돼지고기 시장 동향에 따르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27%, 13%, 21%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달간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총 수출량의 36%를 차지하고, 한국이 13%를 차지해 동아시아로 수출되는 미국산 돼지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농무부(USDA) 산하 농업통계청(NASS)에 따르면, 1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두수와 도축중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약 5억3천25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 또 곡물가격 상승 또한 영향을 미쳐, 올해 총 돈육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2.61% 증가하는데 그친 210억6천만파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 한편 평균 생돈가격도 작년 47.26달러대비 약 2% 하락할 전망이다.

돼지가격 전년비 2% 하락 전망

금년 미국의 돼지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미국 농무성은 올해 돼지 생체 가격이 100파운드당 45~47달러로 지난해 보다 2%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돼지 값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해 3/4분기 44~48달러, 4/4분기 43~47달러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돼지고기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07년 생산량은 972만톤으로 06년보다 2.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농무성은 내다봤다.

돈육 생산량 소폭 증가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3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84만4천여톤으로 전달 74만4천여톤 대비 13.4% 많았으며 전년비 84만8천톤에 견줘서는 소폭 줄었다. 이처럼 3월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1, 2월 생산량이 작년보다 많아 3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24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1만3천톤에 비해 1.5% 가량 늘었다. 도축두수는 920만마리로 2월 812만두보다 13.3% 많았으나 지난해 동기 923만두에 비해서는 소폭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작년 돼지 가격 9% 하락

지자체 중국의 돼지 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06년 중국의 돼지 평균 가격



은 7.2위안/kg으로 '05년보다 9% 가량 떨어졌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도 12.11위안/kg으로 일년전보다 7.8%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돼지 산품(생돈, 부산물, 가공돈육)의 수출은 9억8천만달러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억6천만달러로 '05년에 견줘 10.5% 감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8억2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원인불명 돼지 폐사에 '속수무책'

중국에서 돼지들이 원인불명으로 집단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신은 '인타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의 보도를 인용, 중국 광둥성 가우야오와 운부시 일대에서 원인모를 질병으로 인해 돼지들이 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설 연휴 이후로 최근 급속히 폐사가 진행돼 이 지역 돼지의 80% 가량이 폐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광둥성 당국은 운부와 가우야오시에서 홍콩으로의 생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에도 중국 양자강 이남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돼지들이 집단 폐사한 바 있다.

※ 칠레

돈육 생산·수입 모두 증가

지난해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수입량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칠레 국가통계원에 따르면 작년 돼지 도축두수는 474만1천400톤으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46만7천800톤으로 05년에 비해 14% 늘었다. 이처럼 국내 생산량이 증가한 가운데 수입 돼지고기는 1천443톤으로 05년보다 64% 많았다.

캐나다 BSE 발생

캐나다에서 또 BSE가 발생했다. 캐나다식품검역원(CFIA)이 지난 4월 2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출생의 젖소로부터 BSE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소는 66개월령으로 1997년 사료제한조치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캐나다는 오는 7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사료제한조치를 통해 잠재적 BSE 감염물질의 캐나다 사료 시스템으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10년간 일부 소에서 추가발생이 확인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EU 육류 수입금지 경고

러시아가 유럽연합(EU)산 육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러시아 농무부는 EU에 서한으로 육류 수입 금지에 대해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EU로부터 수입한 몇몇 육류제품이 식품위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육류 안전성 점검 강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육류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천정부지 옥수수 하락세로 반전

최근 미국 농무성은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사료곡물 = 세계 생산량은 9억7천484만톤으로 전 달보다 0.8% 증가한 가운데 미국 생산량은 2억8천11만톤으로 지난달과 같았다. 세계 재고량은 1억2천323만톤으로 한달전보다 3.9%, 미국은 2천572만톤으로 지난달에 견줘 14.8% 늘었다.

△옥수수 = 세계 생산량 6억9천585만톤으로 한달전 예상치에 비해 0.4% 많았으며 미국의 경우 2억6천760만톤으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세계 재고량은 9천182만톤으로 전망돼 지난달 대비 4.6%, 미국은 2천228만톤으로 전월보다 16.6% 각각 증가했다.

△대두박 = 세계 생산량은 1억5천339만톤으로 전월에 건줘 0.3% 증가한 반면 미국은 3천794만톤으로 한달전에 비해 1.4% 줄었다. 세계 재고량은 502만톤으로 전망돼 지난달보다 8.7% 많았으며 미국은 27만톤으로 전월과 같았다.

△대두 = 세계 생산량 2억3천349만톤으로 3월보다 1.8% 늘은 가운데 미국은 8천677만톤으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세계 재고량은 6천102만톤으로 전월에 비해 6.7% 많았으며 미국도 1천673만톤으로 예상돼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원료가격 = 4월 중순 현재 사료곡물 시세는 C&F(운임을 포함한 가격)기준 미국 톤당 옥수수의 경우 225.8달러로 전월 평균 234달러에 비해 8.2달러(3.5%) 떨어졌으며 대두박 역시 296.4달러로 지난달 316달러보다 19.6달러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한국시장 비중 더 커질 듯

미농무부(USDA)에서 최근 발표한 축산물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80%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미국 돼지고기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 : 미국 돼지고기 시장은 한국과 러시아로의 수출증가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해부터 제기됐던 러시아로의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시장이 잠정 제한, 이에 따른 미국산 돼지고기 대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완만한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은 미국 수출시장의 주요국으로 자리잡았다.

■ 유럽연합(EU-25) : 유럽연합에서의 올해 돼지고기 수출은 루마니아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당초 추정치보다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루마니아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올해에는 25만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위생제한과 수입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 국가의 돼지고기 수출이 이들 국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됐다.

■ 캐나다 : 현재 캐나다 돼지고기 산업은 높은 캐나다 달러와 인건비, 사료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캐나다 달러가 양돈산업 전체 비용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 브라질 : 지난해 브라질 구제역과 관련, 러시아의 수입금지 영향으로 가파른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올해 들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종래 시장규모가 작았던 우크라이나와 같은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 러시아 : 올해 수입 예상치는 당초 예상치보다 약 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 관련, 브라질 돼지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부분적 조치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국가들 돼지고기가 브라질 돼지고기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러시아가 돼지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여, 수입량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이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내가 키운 건강돼지 내가 지킨 가족건강